

한국인 정신건강 조사 결과와 사회적 관계 현황 분석

■ 한국인 '일반 정신건강' 조사 결과

- _ 국민 중 17%, 정신질환 발병 위험 집단
- _ 일반 정신건강 평균 점수, 계층 간 편차 커
- ※ 한국판 일반 정신건강 척도(KGHQ) 소개

■ 한국인 사회적 관계 정도

- _ 국민들 사회적 관계, 집과 직장(학교)에 집중돼
- _ 20대는 부모, 30대는 배우자와 소통 많아
- _ 4060세대 : 직장관계 소통, 남녀 차이 두드러져
- _ 남성은 '직장', 여성은 '부모/자녀' 중시 뚜렷
- _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소통 많고 다양해

■ 사회적 관계 만족도

- _ 만족감, 주로 가족과의 소통에 집중돼
- _ 20대 만족감 대상 많은 데 비해, 30대는 대상 줄어
- _ 4060세대 : 만족감 대상,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아
- _ 소통 만족감, 소득에 비례해 높고 대상도 많아져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9월 3일(금) ~ 9월 5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1\%p$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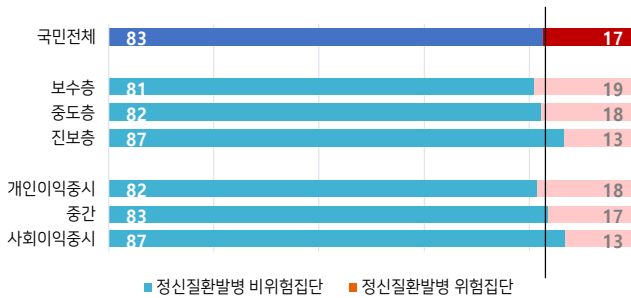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일반 정신건강'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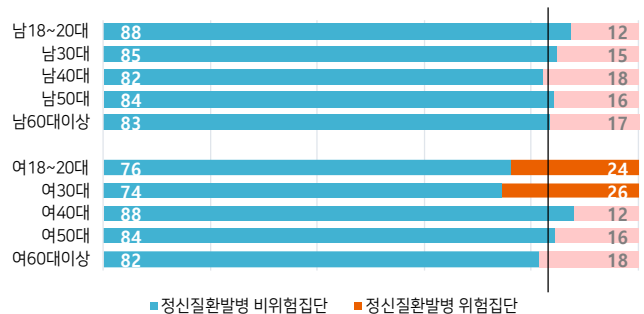
국민 중 17%, 정신질환 발병 위험 집단

- 케이스탯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중 17%는 정신질환 발병 위험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사는 '한국판 일반 정신건강 척도(KGHQ)'를 활용함
 - KGHQ는 일반 정신건강 척도로 개발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의 한국판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참고
- 정신질환 발병 위험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 △경기.인천지역 △대학재학 이하 학력층 △주부, 은퇴.무직자 △400만원 미만 소득 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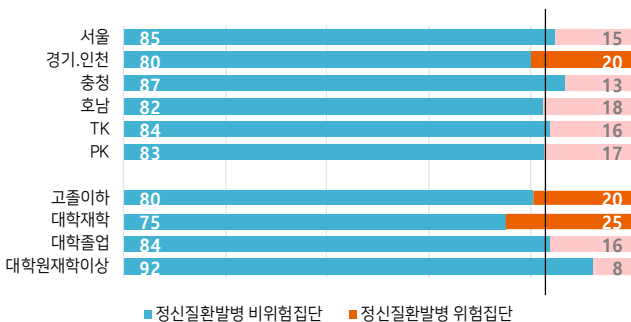
정신질환발병 위험집단 비중 : 국민전체, 이념별, 이억중시별
(자료: 케이스탯, 2021.09.05 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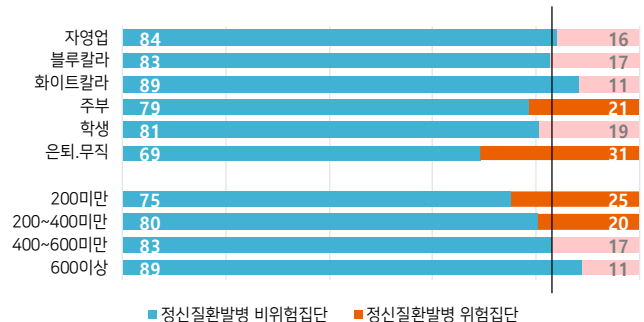
정신질환발병 위험집단 비중 : 성/연령별 (2021.09.05 조사, 단위: %)



정신질환발병 위험집단 비중 : 지역별, 학력별 (단위: %)



정신질환발병 위험집단 비중 : 직업별, 소득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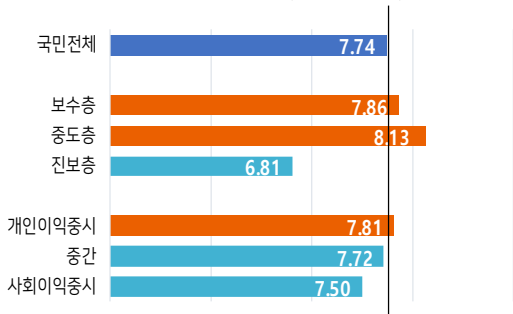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열 명 중 두 명 가까이가 '정신질환 발병 위험 집단'에 속해, 한국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자 2030세대, 대학생,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정신건강 정도는 매우 취약함
- ☑ 조사에 활용한 한국판 일반 정신건강 척도(KGHQ)에는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 요인 등이 포함돼 있어 이들 계층이 불안감과 우울감 등에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됨 : 여자 2030세대를 비롯해 이들 계층의 '불안인식'은 기존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높게 나타남(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6호 『한국인 '불안인식' 진단 및 분석』(2020년 11월 12일자) 참고) : 사회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 ☑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위험집단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소득 격차가 정신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함 : OECD 역시 건강수준에 따라 고용률과 소득차이가 발생하고, 전 생애기간 동안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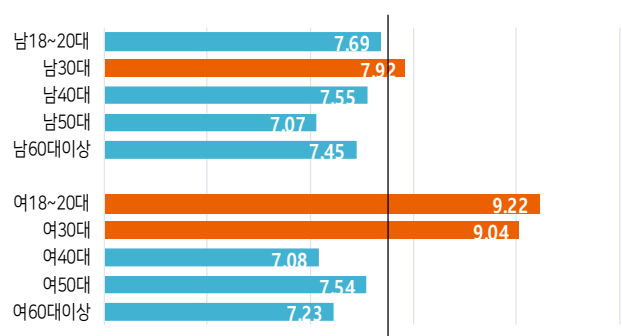
□ 일반 정신건강 평균 점수, 계층 간 편차 커

- 일반 정신건강 평균 점수를 보면, 국민 전체적으로 7.74점으로 나타나 수치적으로 양호함
 - 일반 정신건강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취약하다는 의미임
 - 앞장의 '위험집단'에 속하는 분할점은 13점 이상임
- 그러나 계층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계층 간 편차가 크고, 상당수의 계층이 국민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정신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균점수(7.74점)이고, 붉은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은 수치를 의미함
- 국민전체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계층은 △보수층, 중도층 △개인이익중시층 △수도권, PK △대학재학 이하 학력층 △남자 30대 △여자 2030세대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4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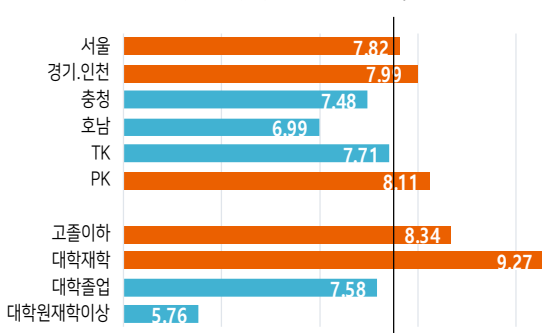
일반 정신건강 평균 점수: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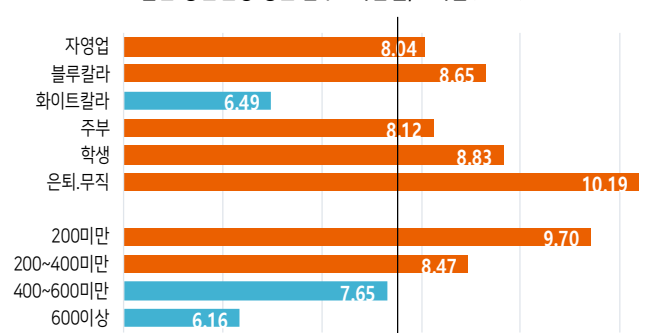
일반 정신건강 평균 점수: 성/연령별 (2021.09.05조사,단위:점)



일반 정신건강 평균 점수: 지역별,학력별 (단위:점)



일반 정신건강 평균 점수: 직업별,소득별 (단위:점)



Kstat Point

- ☑ 앞서 '정신질환 발병 위험 집단'이 많은 계층에서 평균 점수도 높게 나타남
 - : 여자 2030세대, 경기.인천지역, 대학재학 이하 학력자, 주부, 은퇴.무직자, 400만원 미만 소득 계층 등으로 일부 특정 개인들의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이 아니라 계층 전체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 ☑ 또한 국민전체 평균 점수보다 높은 계층이 많아, 상당수의 국민이 '정신질환 발병 위험 집단'으로 전환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임
- ☑ 국가·사회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임
 - : 몇 년 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육체적 건강에 집중할 뿐 '정신건강' 측면은 소홀하다는 평가임
 - : 정신건강이 육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국판 일반 정신건강 척도(KGHQ) 소개

- 일반 정신건강 척도(GHQ : General Health Questionnaire)는 1972년 영국에서 개발된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임
 - 개발 목적은 일차 진료기관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비정신의로 전문가들이 접하는 환자가 정신질환에 걸렸을 가능성을 쉽고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현재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지역사회 내의 대인서비스 전문 인력들이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됨
- 한국에서는 신선인(2001년)이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우리나라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기초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한국판 일반 정신건강 척도(KGHQ)’는 30문항, 20문항 등이 있고, 케이스탯은 20문항을 사용함
 - “선생님이 최근 몇 주 동안 느낀 상태를 그 이전과 비교하여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항목 하나를 골라 표시해 주세요. 응답 내용은 현재를 포함해 최근 2~3주 동안 선생님이 주로 느낀 점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이전 과거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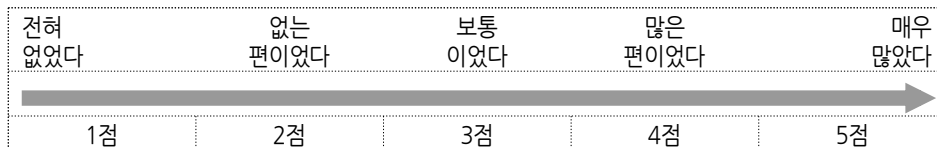
문항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2)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잔 적이 많았습니까?	①	②	③	④
3) 자신이 여러 면에서 쓸모 있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①	②	③	④
4)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5) 계속해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자주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6)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7) 일상적인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8)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9)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습니까?	①	②	③	④
10)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꼈습니까?	①	②	③	④
11) 그 전과 같은 정도로 외출을 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12)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3) 신경이 쓰여서 힘들게 느껴진 일이 많았습니까?	①	②	③	④
14)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많이 설치곤 합니까?	①	②	③	④
15)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16)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17)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느꼈습니까?	①	②	③	④
18) 부지런히 생활하며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19)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까?	①	②	③	④
20) 전반적으로 자신이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①	②	③	④

- 한국판 일반 정신건강 척도(KGHQ)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헌을 참고함
 - 신선인(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 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 김현, 신예니 등(2014), 우울증상 심각도와 삶의 질, 기능손상간의 관계에 대한 불안의 매개효과 및 종교의 조절효과
 - 김보혜, 황수진 등(2021),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학생의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김병수, 김정현(2013), 스트레스 척도 핸드북, 학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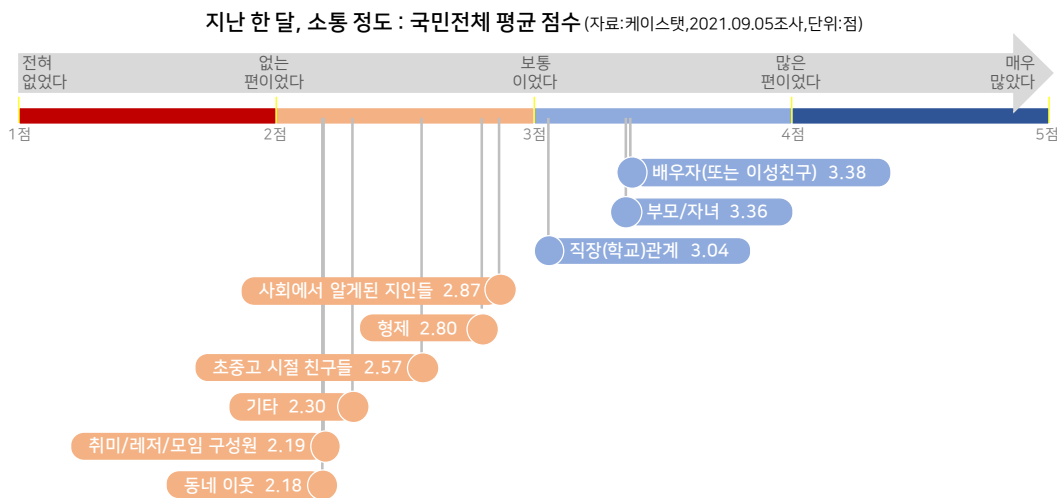
한국인 사회적 관계 정도

국민들 사회적 관계, 집과 직장(학교)에 집중돼

- 국민 개개인이 접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 대상과의 소통 정도를 조사함
 - “선생님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 다음 각각의 사람과 어느 정도 대화와 소통을 한 것 같으세요?”라고 질문한 이후 5점 척도로 응답토록 함



-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관계는 집과 직장(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또는 이성친구)’가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자녀’ 3.36점, ‘직장(학교) 관계’ 3.04점 순임
- 다른 관계는 모두 ‘보통이었다’ 3점에 미치지 못했으며, ‘동네 이웃’이 2.1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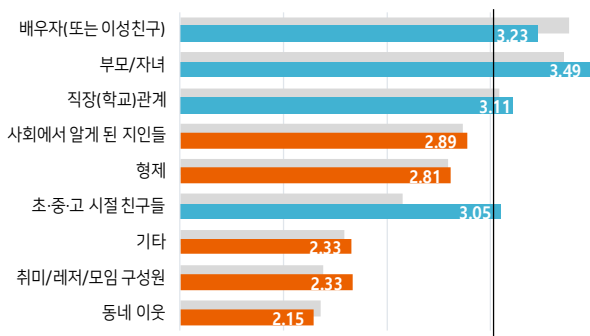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사람은 가족 등 각종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격·취향·가치관 등을 형성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면서 안정감과 만족감 등을 획득하게 됨
 - :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넓고 다양할수록 자아 실현감이 높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짐
- ☑ 현재 우리 국민의 사회적 관계는 공간적으로 집과 직장(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관계적으로 가족(배우자, 부모/자녀)과 직장(학교)에 한정되어 있음
 - : 즉, 자아실현 및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집과 직장(학교) 밖에 없는,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삶의 모습임
- ☑ 특히 지역사회(동네 이웃)와의 소통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 ‘개인-지역사회-국가’로의 연결고리가 매우 취약함
 - : 전 세계 주요 국가는 산업화 이후 상실된 지역사회 기능 복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임
 - : 일례로 국가정책의 거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단위로 집행되고,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중임
- ☑ 이번 조사결과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받은 면이 존재하겠지만, 우리 국민의 ‘일-집’ 중심의 사회적 관계가 반영된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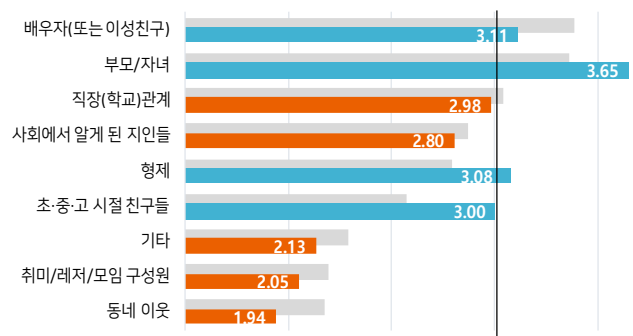
□ 20대는 부모, 30대는 배우자와 소통 많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18~20대는 30대에 비해 표면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남
 - 18~20대와 30대의 차이는 ‘초·중·고 시절 친구들과’와의 소통으로, 18~20대는 3점 이상이지만 30대는 3점에 미치지 못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균점수임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었다’ 3점을 의미하고, 3점 이상은 푸른색 막대, 3점 미만은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또한 18~20대는 부모와의 소통이 가장 많은 데 비해, 30대는 배우자(또는 이성친구)와의 소통이 가장 많은 특징을 보임
- 남녀 간 차이도 보이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장(학교)관계와의 소통이 적음
 - 남자 2030세대는 모두 3.1점을 넘고 있지만, 여자 18~20대는 2.98점이고 여자 30대는 3.01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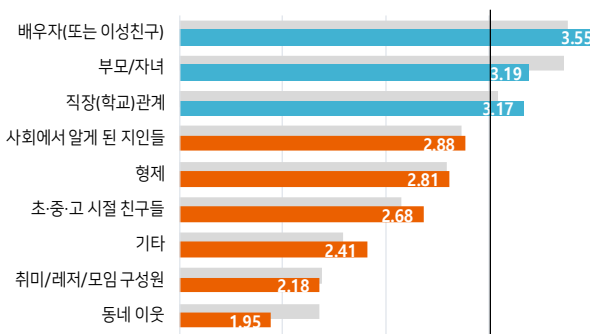
남18~20대,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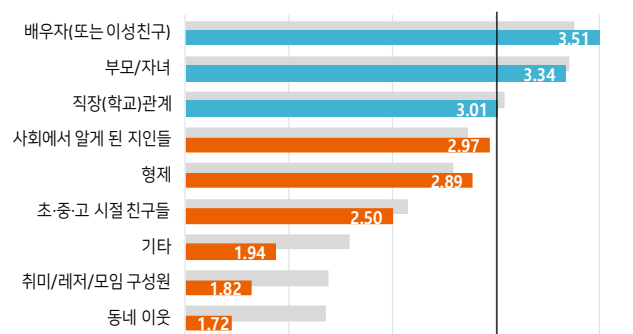
여18~20대,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남30대,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여30대,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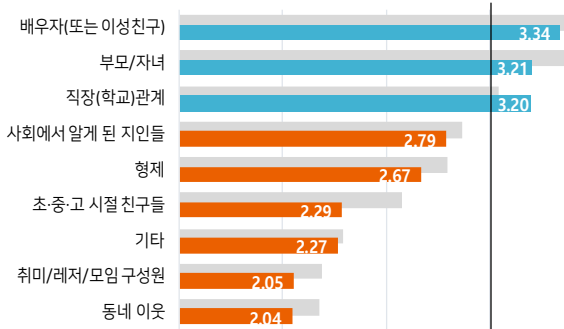
Kstat Point

- ☑ 사회적 관계에서 18~20대와 30대를 구분 짓는 지점은 ‘초·중·고 시절 친구들’인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18~20대의 연령적 특징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초·중·고 시절 친구들과의 관계에 직장관계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됨
 - : 18~20대 역시 사회생활이 본격화될수록 30대처럼 초·중·고 시절 친구들과의 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보임
- ☑ 흥미로운 지점은 남녀 간 차이로, 남성 2030세대에 비해 여성 2030세대의 직장 관계 소통 정도가 낮음
 - : 18~20대 남녀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30대 남녀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여성의 소통 정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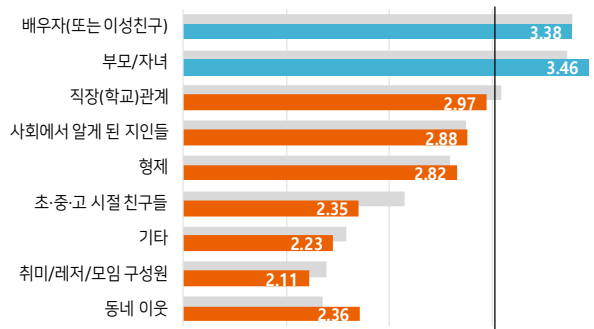
□ 4060세대 : 직장관계 소통, 남녀 차이 두드러져

- 4060세대는 세대 간 차이보다 남녀 간 차이가 많은데, 먼저 남성은 배우자와의 소통이 가장 많고 여성은 부모/자녀 간 소통이 가장 많음
- 다음으로 남성은 직장관계 소통이 모두 3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은 모두 3점에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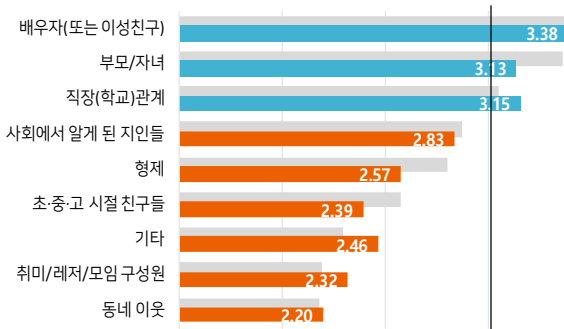
남40대,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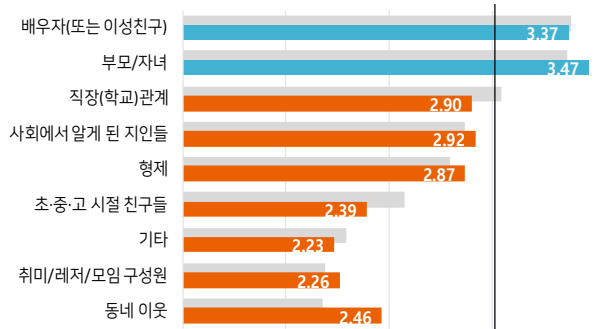
여40대,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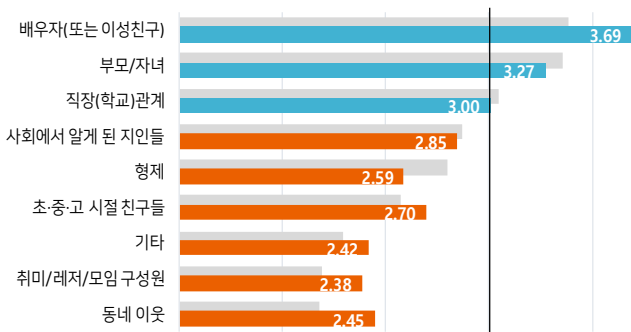
남50대,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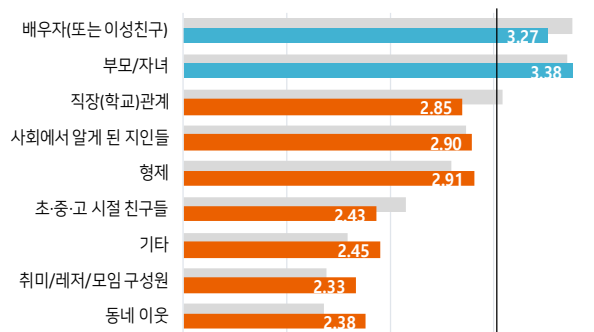
여50대,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남60대이상,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여60대이상,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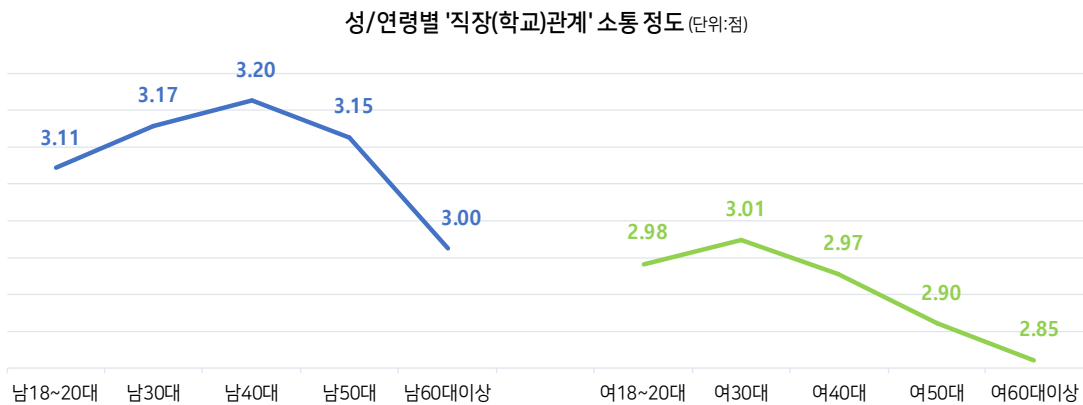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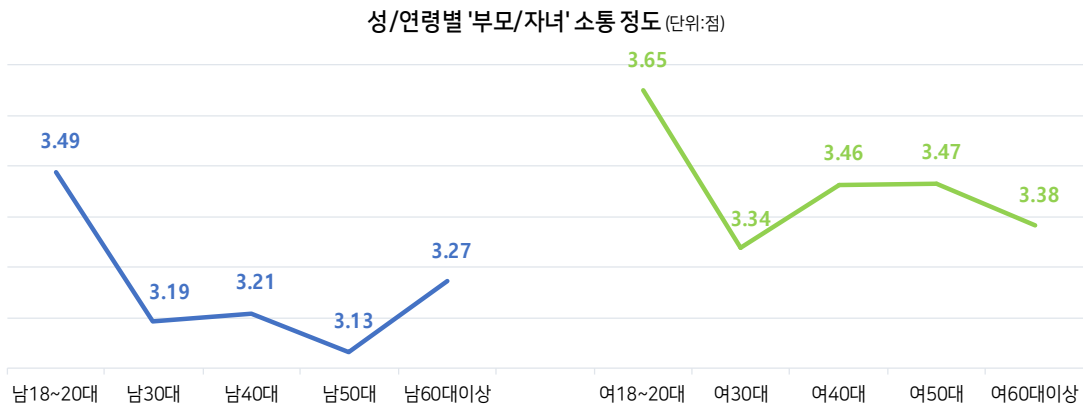
- ☑ 남성층이 가장 소통을 많이 한다고 응답한 대상은 배우자인 데 비해, 여성층은 부모/자녀로 최우선 소통대상자가 다름 : 남성은 18~20대만 부모라고 응답하고, 다른 연령대는 모두 배우자가 최고의 소통 대상임 : 그러나 여성은 30대만 배우자가 최고 소통대상이고, 그 외는 부모/자녀와의 소통을 가장 많이 한다는 차이가 있음
- ☑ 직장관계 소통 정도는 4060세대의 남녀간 차이를 가르는 뚜렷한 지점임 : 앞서 2030세대에서도 직장(학교)관계 소통정도에서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났지만 4060세대에서는 더욱 두드러짐

□ 남성은 '직장', 여성은 '부모/자녀' 중시 뚜렷

- 남성층과 여성층의 '직장(학교)관계' 소통 정도와 '부모/자녀' 소통 정도를 비교해 보면 남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직장(학교) 관계' 소통 점수를 보면, 남성층에서 가장 낮은 남자 60대이상(3.00점)의 점수가 여성층에서 가장 높은 여자 30대 점수(3.01점)와 거의 같음



- 이에 비해 '부모/자녀' 소통 점수에서는 여성층의 점수가 모든 연령에 걸쳐 남성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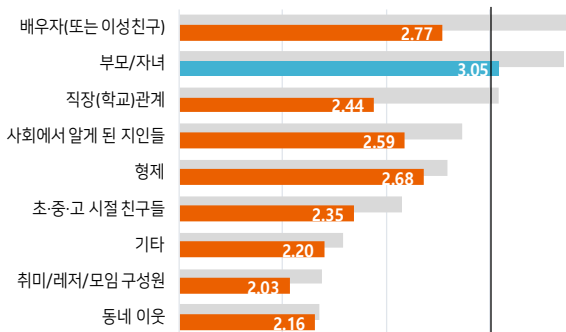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직장관계'와 '부모/자녀' 간 소통에 나타나는 남녀 간 차이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주어진 남녀 간 역할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즉, 남성은 직장생활을 중시하고 여성은 가족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역할' 규정이 그대로 소통 정도에 투영된 것으로 분석됨
 - :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 질서에 따른 남성중심 사회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임
 - :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여성의 가사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출산·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사회 현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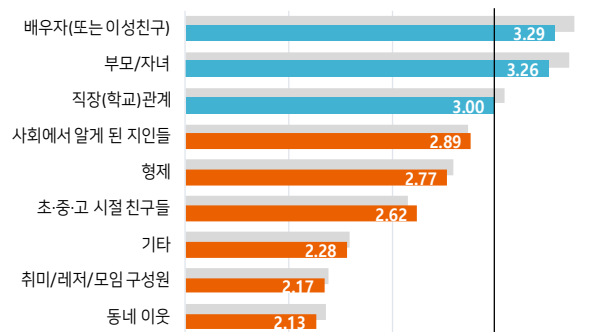
□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소통 많고 다양해

- 소득별 소통 정도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각 대상간 소통 점수가 높고, 소통 대상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통이었다’ 3점을 넘은 경우는 부모/자녀가 유일하고, 다른 모든 대상은 국민 전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함
- 이에 비해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유일하게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의 소통 점수가 3점을 넘었고, 모든 대상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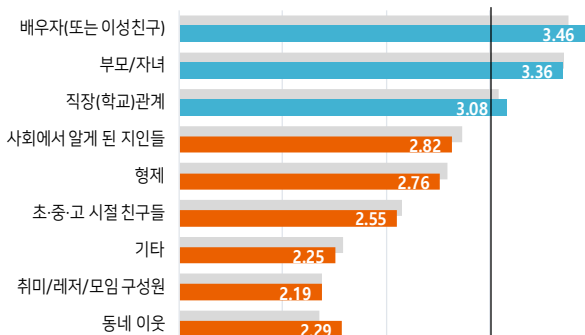
200만원 미만,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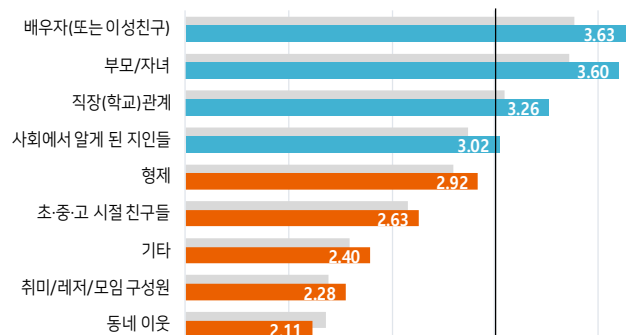
200~400만원 미만,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400~600만원 미만,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600만원 이상, 소통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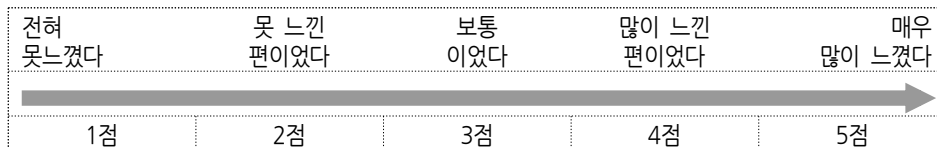
Kstat Point

- ☑ 사회적 관계는 인간이 자아실현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공간이기에 다양할수록, 소통이 활발할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감은 높아지게 됨
- ☑ 이번 조사결과 소득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과 소통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을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본 보고서 앞부분의 「한국인 ‘일반 정신건강’ 조사 결과」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정신건강 평균점수를 보면, 600만원 이상은 6.16점인데 비해 200만원 미만은 9.70점으로 차이가 큼

▶ 사회적 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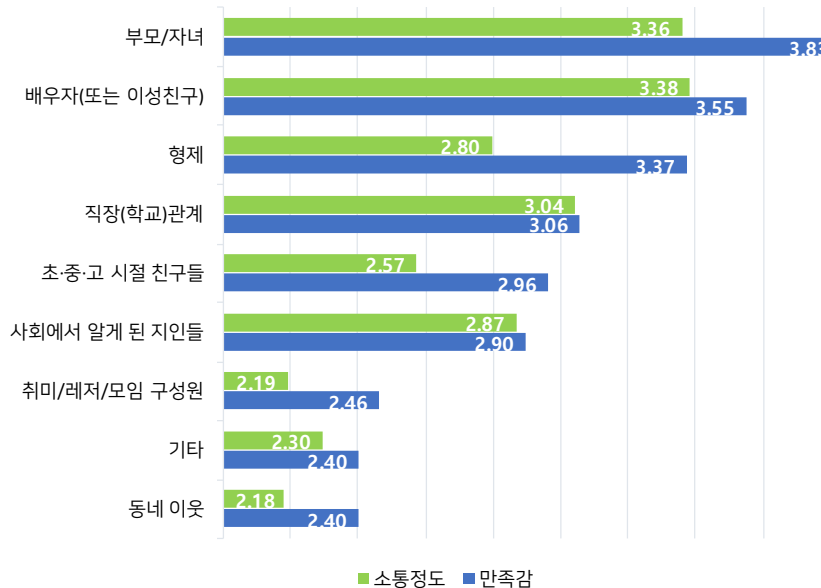
□ 만족감, 주로 가족과의 소통에 집중돼

- 각 대상과의 소통에 대한 만족감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봄
 - “평소 소통을 하면서 선생님이 ‘필요한 존재, 또는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라는 질문 후 5점 척도로 응답토록 함



- 조사 결과 국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소통 대상은 ‘부모/자녀’였고(3.83점), 다음으로 ‘배우자(또는 이성 친구)’(3.55점), ‘형제’(3.37점) 순으로 나타남
- 그 뒤를 이어 ‘직장(학교) 관계’가 3.06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기록함
- 다른 관계는 모두 보통 미만의 점수를 보여,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지난 한 달, 소통정도와 만족감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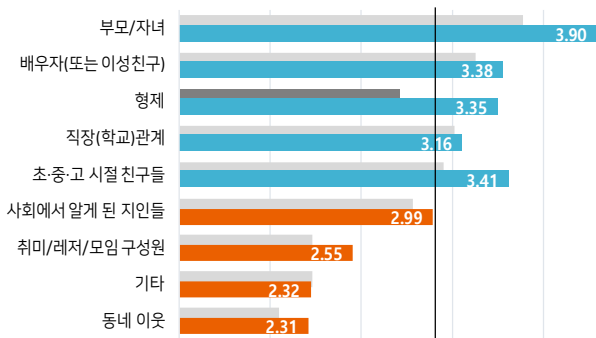
Kstat Point

- ☑ 다양한 사회적 관계 중에서 국민들이 만족하는 대상은 주로 가족과의 관계임 : 부모/자녀, 배우자, 형제 등과 소통할 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음
- ☑ 가족 외의 관계에서는 유일하게 직장(학교) 관계가 보통 이상의 점수(3.06점)를 기록, 직장생활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가족’과 ‘직장’이라는 두 축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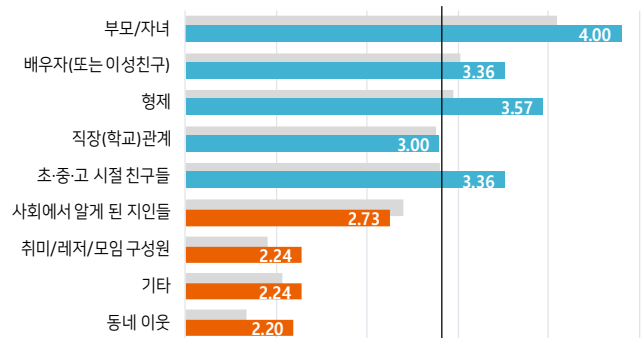
□ 20대 만족감 대상 많은 데 비해, 30대는 대상 줄어

- 18~20대와 30대의 차이는 앞서 소통 정도와 같이 ‘초·중·고 시절 친구들’과의 만족감으로, 18~20대는 3점 이상이지만 30대는 3점에 미치지 못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해당 성/연령의 소통정도 점수임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었다’ 3점을 의미하고, 3점 이상은 푸른색 막대, 3점 미만은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앞서 소통 정도에서 3점 미만을 기록한 ‘형제’가 만족도에서 모두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임
 - 짙은 회색 막대는 소통 정도는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것을 표기한 것임
- ‘직장(학교) 관계’는 소통 정도에 이어 만족도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함
 - 남자 2030세대는 모두 3.1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여자 18~20대는 3.00점이고 여자 30대는 2.75점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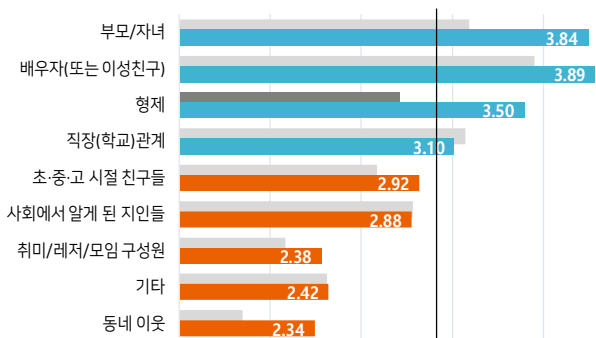
남18~20대, 소통정도과 만족감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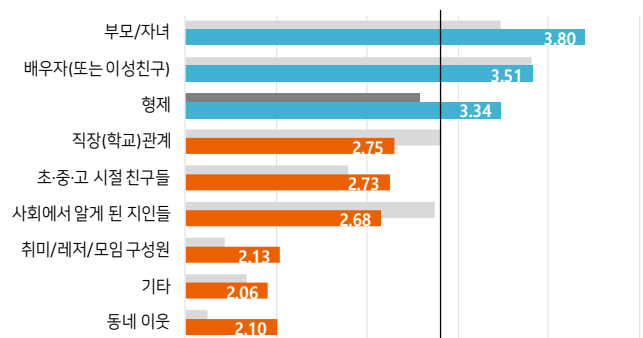
여18~20대, 소통정도과 만족감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남30대, 소통정도과 만족감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여30대, 소통정도과 만족감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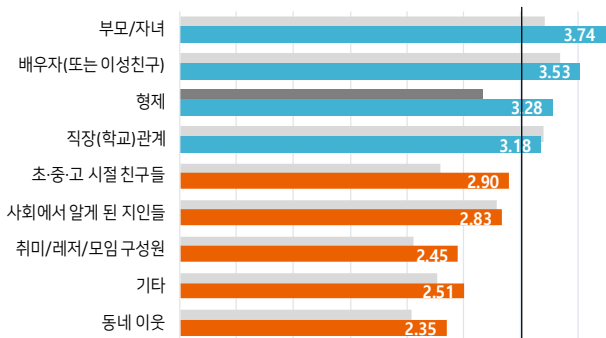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전체적으로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가족과 직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18~20대는 여기에 초·중·고 시절 친구들이 만족도 높은 대상으로 추가되는 특징을 보임
 - : 30대의 초·중·고 시절 친구들과의 만족감이 3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서의 만족감은 남녀가 비슷하지만, 직장(학교) 관계에서의 만족감은 여성층이 낮음
 - : 특히 여자 30대의 만족감은 3점에 미치지 못하는 2.75점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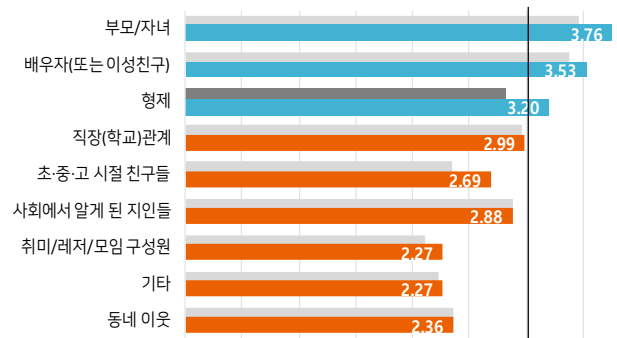
□ 4060세대 : 만족감 대상,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아

- 40대와 5060세대의 만족감 대상이 다른데, 5060세대는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이 대상에 추가됨
 - 여자 50대만 만족감이 3점을 넘지 못하고, 다른 5060세대는 모두 3점 이상을 기록함
- 직장관계 만족감은 소통 정도와 비슷하게 남성은 모두 3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음
 - 여자 50대만 3.04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여자 40대와 여자 60대 이상은 3점 미만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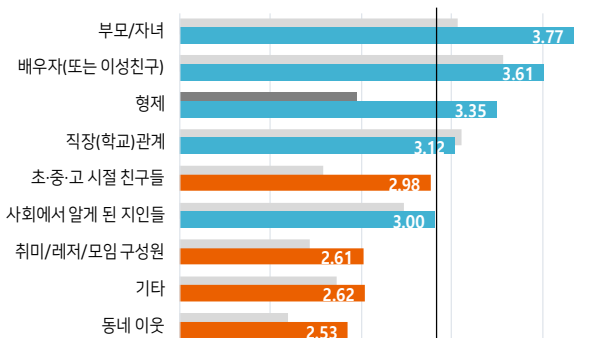
남40대, 소통정도과 만족감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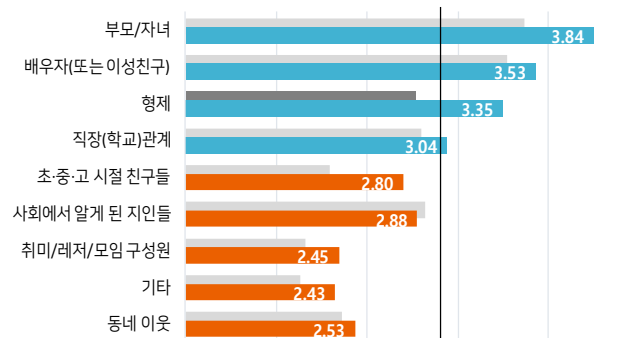
여40대, 소통정도과 만족감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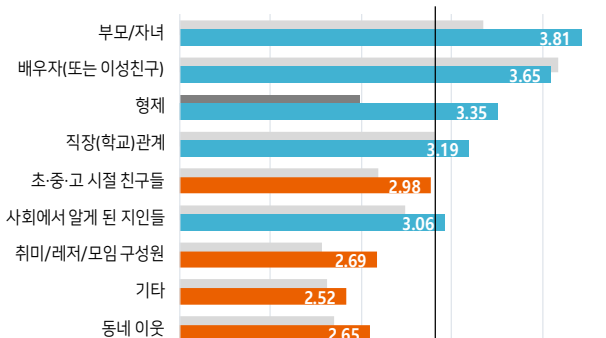
남50대, 소통정도과 만족감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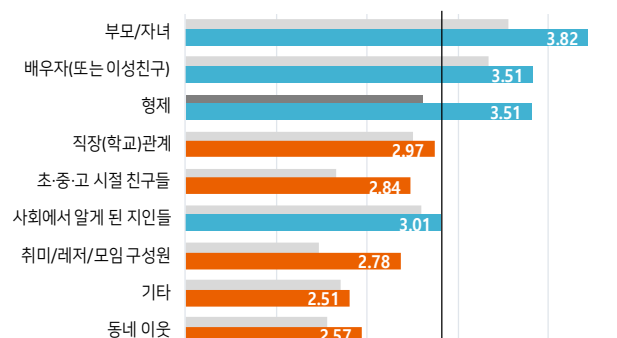
여50대, 소통정도과 만족감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남60대이상, 소통정도과 만족감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여60대이상, 소통정도과 만족감 (자료:케이스탯,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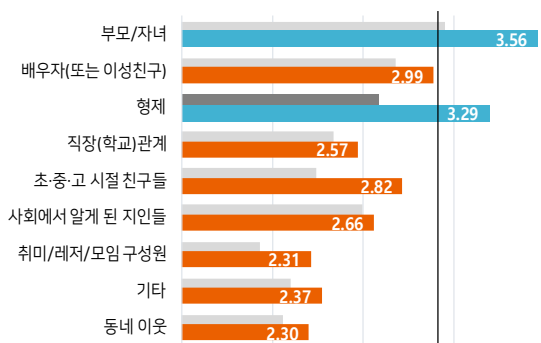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의 소통 만족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또한 직장관계 소통 만족도는 4060세대의 남녀 간 차이가 뚜렷한 지점임
 - : 앞서 2030세대까지 포함해, 직장관계 소통 만족도는 전체 남녀 간 차이를 분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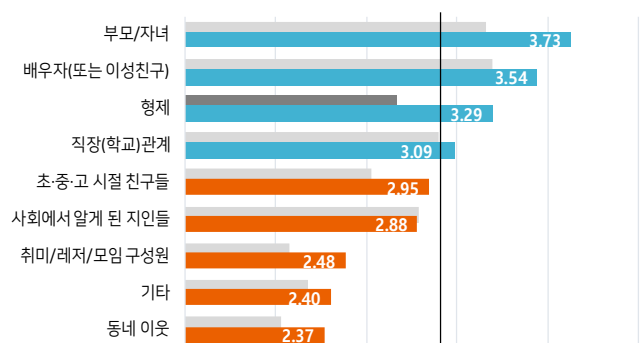
□ 소통 만족감, 소득에 비례해 높고 대상도 많아져

- 소통 만족감을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감 점수가 높고, 그 대상도 많아짐
-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소통 만족감이 3점을 넘은 대상은 ‘부모/자녀’와 ‘형제’에 그침
-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초·중·고 시절 친구들’까지로 만족감 대상이 확대되고, 만족감 점수가 모든 대상에 걸쳐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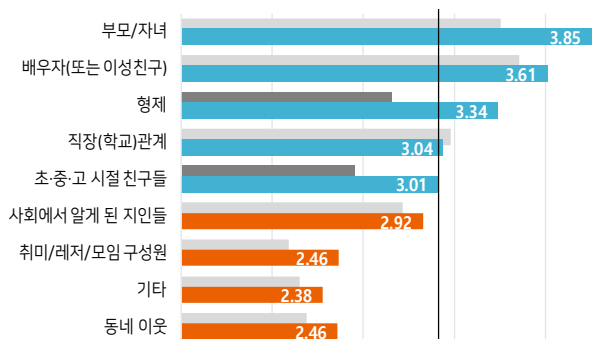
200만원미만,소통정도와만족감 (2021.09.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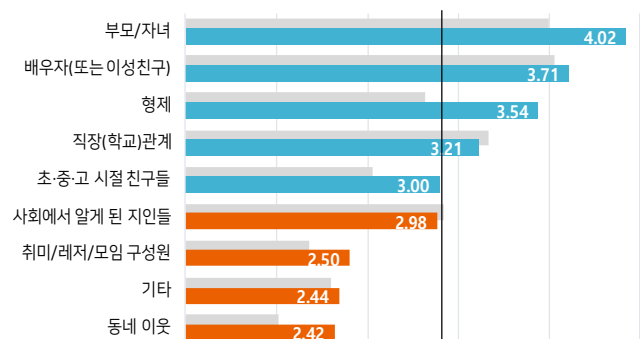
200~400만원미만,소통정도와만족감 (2021.09.05조사,단위:점)



400~600만원미만,소통정도와만족감 (2021.09.05조사,단위:점)



600만원이상,소통정도와만족감 (2021.09.05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전 국민적으로 볼 때 대상별 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이에 비례해 소통 만족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엄밀히 말해 소통 만족감이 높기에 소통 정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소통 정도와 만족도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
- ☑ 또 한 가지 특징은 ‘직장 관계’ 소통 정도와 만족감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간의 뚜렷한 차이임
: 갈수록 여성의 사회 활동이 많아지고 남녀평등 흐름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른바 ‘유리 천장’이 여전한 우리사회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 앞부분의 「한국인 ‘일반 정신건강’ 조사 결과」에서 여자 2030세대의 정신질환 위험 정도가 높은 데는 이러한 ‘유리 천장’이 여성층에 가하는 구조적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36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36호는 『한국인 소속감 집중 분석』이라는 주제로 9월 30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